

한빛원전사고, 5·18기사 돋보여...지역현안 깊이있는 취재를

김윤하 전남대 의대 산부인과 교수



호남지역 일간지 최초
지령 2만1000호 뜻깊어

강대석 남도향토 문화연구원장



각 지면 제목 위트·함축미
편집 아이디어 신선

조미옥 영암 신북중 수석교사



박성천 기자 추천 책 코너
금요일 기다리게 하는 기사

이철갑 조선대 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



아파트값 상승만 지적 말고
대안도 제시 했으면

광주일보 제9기 독자위원회 회의

6월 25일 광주일보 9층 편집국 회의실

광주일보 제9기 독자위원회가 지난 25일 광주시 동구 광주일보 9층 편집국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장필수 편집부국장도 김윤하 독자위원장을 비롯해 강대석, 강철성, 박인철, 신일섭, 이철갑, 조미옥, 진용태, 최선희 위원 등 본사가 위촉한 독자위원 9명이 참석했다.



광주일보 독자위원들이 지난 25일 광주일보 편집국 회의실에서 김윤하 위원장 주재로 지면평가 회의를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진용태 광주시변호사회 제1부회장



호남지역 발전 위해
지역의 여론 주도해야

강철성 광주시테니스협회장



지역 문제 선제 보도
독자들에게 높은 신뢰감 줘

박인철 광주신세계 수석부장



소모적 논쟁 탈피
광주일보가 앞장 섰으면

최선희 베스트디자인연구소 대표



수영대회 성공 개최 위해
문화관련 행사 기사 많았으면

◇김윤하=창사 67주년 맞은 광주일보는 5월 13일 호남지역 일간지 중 최초로 지령 2만1000호를 발행했다. 앞서 지난 4월 5일 제63회 신문의 날 기념식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1980년 5월 광주일보의 전신인 옛 전남매일 기자들의 양심이 담긴 공동사표에 대해 '독자와 검열의 시대에 보여준 신문의 용기있는 행동'이라며 극찬하기도 했다. 이런 점이 광주일보의 위상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다.

올 상반기는 영광원전 사고, 비정한 아내의 남편 살해, 형가리 유람선 침몰 등 국내외의 어두운 소식이 주요기사로 다뤄졌다. 반면 U-20 월드컵, LA다저스 류현진의 호투, 이정은6 LPGA 우승 등으로 국민들의 답답함을 다소나마 풀어주는 스포츠계의 희소식도 있었다.

이 같은 대형 이슈 속에서 광주일보는 바쁘게 현장을 누비며 한 발 더 빠르게 독자의 시선을 사로잡는 새로운 소식들을 발굴해 냈다. 그 열정이 지면 곳곳에 담겨있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돋보였던 기사는 '한빛원전 1호기 원자로 무자격자가 제어봉 조작' <5월21일>이었다. 앞서 보도된 '한빛원전 1호기 재가동 하루앞두고 원인 모를 제어봉 이상' <5월13일>기사의 후속취재에 따른 단독보도로 사건을 좀더 세밀하게 들여다 본 결실이었다.

반면 아쉬움도 있었다. 지난 4월 19일자 광주일보 창사특집에 지역주도지로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독자들에게 던지는 화두가 부족함을 꼽고 싶다. 또 기사 속 소탈자는 가독성 저하 뿐만 아니라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있어야겠다.

◇강대석=상반기 보도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지역 대표 언론답게 지역여론과 문제를 놓치지 않는 심층보도로 독자의

신뢰를 얻기 충분했다. 광주일보는 5·18민주화운동 39주년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5·18관련 기사를 썼다. 5·18의 진실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 노력이 단연 돋보였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기사는 전남대 5·18 연구소 김희송 교수의 '5월의 진실을 찾아서'였다. 이 기사는 자료만으로도 사료적 가치가 충분한 매우 좋은 보도였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주도적 보도도 눈에 띄었다. D-50일부터 매일 대회의 추진상황을 체크하고 그와 관련된 자원봉사, 복한의 참가여부, 종목별 관련 포인트까지 다양하게 보도했다.

'혁신도시 시즌 2... 광주 따로 전남 따로' <5월30일> 기사를 통해 광주시와 전남도의 상생정책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도 잘 지적했다. 사·도가 상생의 길로 가야함을 일깨운 시의적절한 기사였다.

각 지면의 제목들이 위트와 함축미가 있어 편집의 아이디어가 돋보이고 신선해 독자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호남기업 금호 색동날개를 접다' <4월16일>, '셋노란 월출산의 봄, 광대한 꽃 세상을 봄', 이달의 편집상을 수상한 '못 밝힌 진실, 못 끊은 왜곡' <5월17일>, '2강in-우승만 남았다' <6월13일> 등은 지면의 제목들을 통해 신문읽는 재미를 더해 주었다. 또 경제면 기사의 경우 독자들의 이해가 쉽도록 그래프와 도표를 삽입해 기사 자체로서 독자친화적임을 느낄 수 있었다.

◇조미옥=시대가 변해도 종이신문의 무게감은 더해가고 있다.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 미디어시대인 요즘, 인터넷뉴스 등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는데 이런 뉴스에 속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팩트를 최우선으로 보도하는 종이신문의 가치가 빛을 발하지 않나 싶다.

여러 기획기사 중 '한류 원조 고대 일본에 선진 백제 문화를 전하다' <5월 21자>라는 천년 전라도의 훈 기획기사가 단연 돋보였다. 이 기사는 왕인박사와 관련된 영암지역 학생들에게는 좋은 교재로 수업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 기사를 자료 삼아 영암군청과 영암교육청이 주관해 학생들을 데리고 일본 왕인박사 유적지를 체험하고 오기도 했다.

문화의 트렌드를 광주일보가 잘 제시하면서 언론·교육·사회기관들을 연계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었다. 사회기관과 연계시킬 수 있는 기사가 많이 보도됐으면 좋겠다.

'계입하듯 집단폭행...친구 죽인 10대들' <6월12일>이라는 기사는 독자들의 알 권리를 내세우지만 모방범죄를 부를 우려가 있는 기사였다고 본다. 독자들은 편향될 수 있지만 언론의 입장은 되도록이면 중립을 유지하면서 청소년들의 모방심리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가해학생들의 잘못이 크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가해학생들만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와 어른세대가 함께 반성하고 고민해야 한다. 독자들이 판단하고 올바른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방향 전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이라는 코너는 금요일을 기다리게 하는 기사다. 현대인들은 책을 읽을 여유가 없어도 불구하고 책에 대한 열망이 잠재돼 있다. 그러한 심리를 잘 파악해 광주일보가 독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책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넋지 효과'를 주는 것 같아 감사했다.

◇이철갑=지난 20일부터 '아파트의 공습 대책 없는 광주'라는 내용으로 연속 3번 보도를 했는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 이유 지적만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에타 면제사업으로 광주는 인공지능을 하고 있다. 헬스, 예나

지, 자동차가 인공지능의 핵심인데 이 지역에 있는 GIST(광주과학기술원) 중심으로 간다고 한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육성하는 것이라 한전공대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전남대, 조선대에도 에너지학과가 있다. 수도권 집중화 때문에 지방 불균형화가 생긴다. 그중 핵심이 교육이다. 이쪽의 대학을 구조조정을 통해 키우는 방법 등 그런 부분의 깊이 있는 취재를 해줬으면 한다.

광주형일자리가 교육 명사처럼 나오지만 아직까지 광주형일자리 개념에 대한 명확한 기사는 보이지 않았다. 그동안 기사를 통해 광주형일자리 개념의 급어는 많이 알려졌다. 반면 교육, 주거, 의료 지원 등에 대한 보도는 거의 없었다. 광주형일자리 개념은 적정 급여와 함께 청년들이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등이 교육과 주거, 의료 지원 등을 하는 것이다. 광주시가 이런 지원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취재했으면 한다.

◇진용태=광주일보가 호남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민의 여론을 주도해 나갔으면 한다.

◇강철성=광주일보는 지역대표 신문답게 지역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보도하는 등 독자들에게 높은 신뢰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박인철=소모적인 논쟁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광주일보가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앞으로 갈 수 있어야 한다.

◇최선희=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얼마남지 않았다. 하계 유니버시아드 보다는 뜨겁지 않다. 수영대회를 앞두고 열리는 문화 관련 행사의 기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얼마남지 않은 수영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광주일보가 역할을 다했으면 한다 /정라·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약속

가장 힘든 순간 함께 하겠다는 약속, 손해보험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비바람에도, 예상치 못한 아픔에도
당신이 일어설 수 있는 힘 바로 손해보험입니다.